



OECD 개발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교육이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을 강화할 수 있다

2019년 11월 2일, 방콕 - 2020년도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에 대한 경제 전망서에 따르면 아시아 신흥국 경제 성장은 2019년에는 계속해서 안정적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미약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해당 지역의 GDP 성장은 2013-2017년도의 6.7%보다 감소하여 2020-2024년에는 5.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 및 투자는 안정을 추구하는 한편 민간 소비는 계속해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해당 기간 동안 4.9%의 성장이 예측되는 반면 중국의 성장은 5.6%, 인도의 성장은 평균 6.6%에 달할 것이다.

선진경제국의 관세 관련 불확실성 및 성장 둔화는 역사적으로 금리가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아시아 신흥국은 통화 정책을 이용하여 경제 마찰을 완화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기후 온난화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재난 회복 이니셔티브에 대해 지역 정부가 강력하게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

방콕에서 열린 2019년 ASEAN 사업 및 투자 회담에서 시작한 금년도 *전망서*는 디지털 시대를 위한 교육의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두고 있다. OECD 개발 센터 소장이자 OECD 개발 총장의 특별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마리오 페치니는 "해당 지역의 교육 제도는 로봇틱스 및 인공 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기회 및 도전과제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사회가 소통하고, 생산하며, 창조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한다.

해당 지역이 처한 도전과제는 학교가 충분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교사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훈련시키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학교 교과 과정이 모든 수준에서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하도록 조언한다. 직업 교육 및 평생 교육은 또한 디지털 포용성을 강력하고 인터넷 사용의 성별 분리를 연결할 수 있다.

*2020 년도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에 대한 경제 전망서*와 해당 국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http://www.oecd.org/dev/asia-pacific/>에 방문하여 참고하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언론인들은 OECD 개발 센터의 아시아 데스크 담당자 켄수케 타나카 (Kensuke.Tanaka@oecd.org, 전화: +33 (0)6 27 19 05 19) 혹은 보크라 크리우트 (Bochra.Kriout@oecd.org, 전화: +33 (0)1 45 24 82 96)에게 연락을 취하십시오.

보고서에 관해서

*2020 년도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에 대한 경제 전망서*는 OECD 개발 센터에 의해 발간된다. 해당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및 OECD 회원국 간에 서로의 모범 관행을 배우고 교환하는 것을 장려하는 *OECD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에 기여한다. 올해의 *전망서*는 일본, 한국, 스위스 및 유럽 연합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